

## 조선 후기 서사체에 나타나는 설득화법의 두 양상

-〈한중록〉과 〈조씨삼대록〉의 경우-

김현주\*

— <차 례> —

1. 머리말
2. 〈한중록〉의 설득 화법
3. 〈조씨삼대록〉의 설득 화법
4. 설득 화법의 위상과 의의
5.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한중록〉과 〈조씨삼대록〉에서 볼 수 있는, 일인칭 진술이 논리적으로 펼쳐지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화법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러한 설득 화법이 어떤 시대적 위상과 의의를 지니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한글 창제 이후 지식 및 정보 전달 위주의 한글 문헌들이 주를 이루다가 조선 후기 〈한중록〉과 국문장편 가문소설과 같은 문학적 서사물들에 와서 설득 논리가 한층 강화된 글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들을 주목하고 그 구조와 배경을 살펴보고자 했다. 〈한중록〉은 논리적이지만 방어적인 변론을 위주로 하여 작자 자신과 작자 부친의 인격에 의한 설득을 주된 화법 방식으로 삼고 있음에 비해, 〈조씨삼대록〉은 사물의 이치를 객관적으로 논구하고 상황에 대한 다각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을 통해 논리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상대방을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한중록〉과 〈조씨삼대록〉에 나타나는 설득 화법은 발화 인물이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서술 대상을 요묘조묘 따지는 진술 방식을 선호하는 시대적 관점을 반영한다. 그러한 진술에는 서술 대상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해, 분석, 종합, 진단, 평가,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장 등이 구조적으로 잘 짜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고소설의 독자들이 각 인물들의 말이 논리의 체계적이고 정연한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플롯의 시간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진술을 통한 서술 공간이 얼마나 풍부하게 창출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두 작품에 나타나는 설득 화법은 검양의 어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특징도 있다. <한중록>에서는 어휘나 어미 차원의 경어체를 사용함으로써 검양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조씨삼대록>에서는 문장 구조 차원에서 고사성어적 검사의 구절을 사용하는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겸손한 어법이 남을 감화시키거나 설득시키는 능력이 증대된다는 당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유교식 교양 교육이 선비의 수양 덕목으로부터 벗어나 일반 백성의 행위 기준으로 확대된 당시의 교양 교육의 실상을 반영한다. 두 작품에 나타나는 설득 화법은 일상적인 생활 정서를 그대로 담은 구어체 화술을 구사하고 있어 당대의 언문일치 현상을 잘 보여준다. 이는 판소리 소설이 보여주는 비속한 말투의 구어체 화법이 아닌, 또 하나의 다른 층위의 구어체 화법, 즉 양반 사대부 가문에서 행해지는 일상적 어문생활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한중록>, <조씨삼대록>, 국문장편 가문소설, 설득화법, 겸손어법, 구어체 화법, 어문생활

## 1. 머리말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글 문헌들이 이어졌지만 그것들은 대개 단순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성격이 강했다. 용비어천가 이후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 월인석보 등이 그러했고, 삼강행실도, 이륜행실도, 오륜행실도 등이 그러했으며, 불경과 소학, 윤음 등에 대한 언해도 정보와 지식의 전달이라는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국어의 화법이 서사적 문학물에서 그 논리적 구조가 강화되는 국면이 나타난다. 문학적 성격의 서사물 속에 인물의 대화 형식으로 된 진술이 여러모로 논리성이 한층

증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는 화법에서 그런 점이 두드러진다. 그러한 문학적 서사물로서 우리는 <한중록>과 국문장편 가문소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중록>은 창작년대가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만, 국문장편 가문소설은 많은 경우 창작년대가 확실치 않다. 혜경궁 홍씨가 지은 <한중록>은 1795~1805년 사이 10년간에 걸쳐 쓴 것이다. 그런데 가문소설은 어느 한 시기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대개는 18세기~19세기에 두루 걸쳐 창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편 가문소설의 출현에 그 기반을 제공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의 작자를 각각 김만중과 조성기로 본다면, 국문장편 가문소설은 17세기 후반으로까지 창작년대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sup>1)</sup> 이 글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씨삼대록>의 경우 홍희복(1794~1859)이 중국소설 <경화연>을 번역한 <제일기연> 서문<sup>2)</sup>에 가문소설 목록의 하나로 얘기하고 있는 걸로 볼 때, 분명하지는 않지만 19세기 초에는 널리 읽혀지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또 <조씨삼대록>이 여느 다른 가문소설들처럼 하나가 아닌 여러 이본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면, 그 창작과 향유의 시간을 18세기로 소급해서는 안된다는 법도 없을 것이다.<sup>3)</sup> 따라서 <한중록>과 국문장편 가문소설의 하나인 <조씨삼대록>의 화법적 구조를 동시대의 산물로 놓고 봐도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sup>4)</sup>

- 1) 국문장편 가문소설의 하나인 <소현성록>의 창작년대를 17세기 말로 보는 견해가 제출되어 있다.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1~256쪽.
- 2) <제일기연>의 번역은 1835~1848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규복·박재연 공편, 『제일기연』, 국학자료원, 2001, 1~714쪽; 정영호, 『<경화연>과 한글역본 <제일기연>의 비교 연구』, 『중국소설논총』 26, 2007, 271~294쪽 참조.
- 3)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조씨삼대록>의 이본은 단 하나(서강대학교 도서관 소장본)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 4) 물론 이 글이 취급하고 있는 영역 외의 다른 시각에서 볼 때에는 창작연대와 역사적

<한중록>과 국문장편 가문소설은 향유 계층의 신분을 통해 볼 때에도 국어 화법의 근사함을 추정해볼 수 있다. <한중록>의 작자 혜경궁 홍씨는 궁중의 여인으로서 궁정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궁중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가녀로서 상층 신분 가문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했으리라는 점도 우리는 알 수 있다. 물론 궁중 언어와 사대부 집안의 언어가 세부적으로는 다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바탕부터가 다르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얼마간의 어휘와 어미들의 쓰임새가 달라지지만 그 근본적인 문법과 화법상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 국문장편 가문소설들도 궁중 여성들과 사가녀들을 중심으로 그 향유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물론 창작에서는 여성과 더불어 사대부 남성들도 참여했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런 점에서 <한중록>과 국문장편 가문소설의 화법에는 당시의 궁중과 상층 사대부 계층의 일상 언어 생활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중록>과 국문장편 가문소설의 화법은 비슷한 점이 많지만 다른 점도 많다. 그것은 회고적 진술과 허구적 진술 태도와 같은 장르의식의 차이라든가 작자의 저술 의도와 개인의 화법적 취향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텍스트에서 논변의 구조가 빈번하게 나타남으로써 설득 화법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설득 화법은 호소하기도 하고 간청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진술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납득을 받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논증과 변론과 같은 논변구조가 발달해 있다. 감정적인 진술보다는 논리적인 진술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득 화법이 조선 후기의 서사체들 가운데 <한중록>과 국문장편 가문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중록>은 혜경궁 홍씨의 일인칭 발화가 논리적으로 시종되고 있으며, 국문장편 가문소설의 경우는 가문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

---

인 변이 양상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거나 주요 역할을 하는 진중한 성격의 사람이 상대방과 대화하는 가운데 보인다. 그것들은 텍스트를 한층 논리적으로 결속시키고 텍스트 자체의 설득력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들은 논변의 방식을 보여주는 근현대의 서사적 텍스트에서 볼 수 있는 국어 화법을 선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중록>과 국문장편 가문소설에서의 논리성의 증대는 비록 한글이 아니라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상소문과 같은 장르에서 영향받은 바가 없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sup>5)</sup> 그러나 이런 타 양식의 영향관계 이외에도 당시 사람들의 서사의식의 변화라든지 일상 생활 어법의 반영이라든지 하는 차원들을 우리는 다각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는 국어화법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고전소설의 화법·어법·문체 등을 가지고 당시의 언어환경이나 해당 텍스트의 담화·담론적 배경 등과 연결해 생각해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화법 연구가 당대의 어문생활사를 재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탐색하는 의의도 들어 있다.<sup>6)</sup>

<한중록>과, 국문장편 가문소설 가운데 하나의 작품인 <조씨삼대록>에서 뽑은 사례를 가지고 설득 화법의 양상을 각각 분석한 다음, 이러한 설득 화법이 갖는 시대적 위상이라든가 의의를 탐구하는 순서로 글을 진행하고자 한다. <조씨삼대록>이 국문장편 가문소설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진중한 성격의 핵심 가문원이 구

5) 상소문의 영향 관계는 이 글의 목표가 아니므로 다루지 않는다. 상소문의 설득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할 것. 민현식, 『갑자 상소문의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연구』, 『어문연구』 39, 2011, 7~42쪽; 염은열, 『상소문의 글쓰기 전략 연구』, 『국어교육연구』 3, 1996, 77~98쪽; 오인환·이규완, 『상소의 설득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7, 2003, 5~37쪽.

6) 조동일, 『어문생활사로 나아가는 열린 시야』, 『관악어문연구』 28, 2003, 69~90쪽; 백두현, 『어문생활사로 본 인간과 한글고문서의 연구 방법』, 『국어사연구』 10, 2010, 41~72쪽.

사하는 논리적인 설득 화법 방식이 가문소설 전반에 걸쳐 유사하다고는 판단되지만, 각각의 가문소설들에서 미세한 양상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이 아직 전반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은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나온 해석은 <조씨삼대록>에 국한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씨삼대록>에 나타나는 설득 화법의 방식이 가문소설 전반의 시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향적으로 염두에 두고자 한다.

## 2. <한중록>의 설득 화법

<한중록>은 혜경궁 홍씨가 자기 친정 집안 사람들이 억울하게 득죄한 데 대해 그것을 신원하기 위하여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씨의 동생과 삼촌은 사약을 받는 참척의 이픔이 있었고, 부친 흥봉한은 정적들에게 수차례 모함을 받고 실각을 되풀이하는 한맺힌 삶을 살았기에 그것을 증언하고 원정하는 수기를 쓴 것이다. 이러한 탄원과 증언의 대상이 정조가 되건, 순조가 되건, 아니면 정적들이나 홍씨 집안 사람들이 되건간에 그러한 진술은 자기측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상대방을 감화 설득시키고자 하는 화법을 구사하게 되리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중록>은 사건들을 논구하고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여 논변하고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변론함으로써 그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호소하고 독자들을 설득하고자 한다. 그 설득의 방법에 있어 핵심은 화법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화법은 문체적인 측면도 있으나 논리구성적인 측면도 있다. <한중록>의 문체는 “옛 귀인의 열두폭 스란치마 자락같이 치렁치렁한 문체”<sup>7)</sup>로 유명하다. 고어와 궁중용어로 촘촘이 장식된 그러한 만연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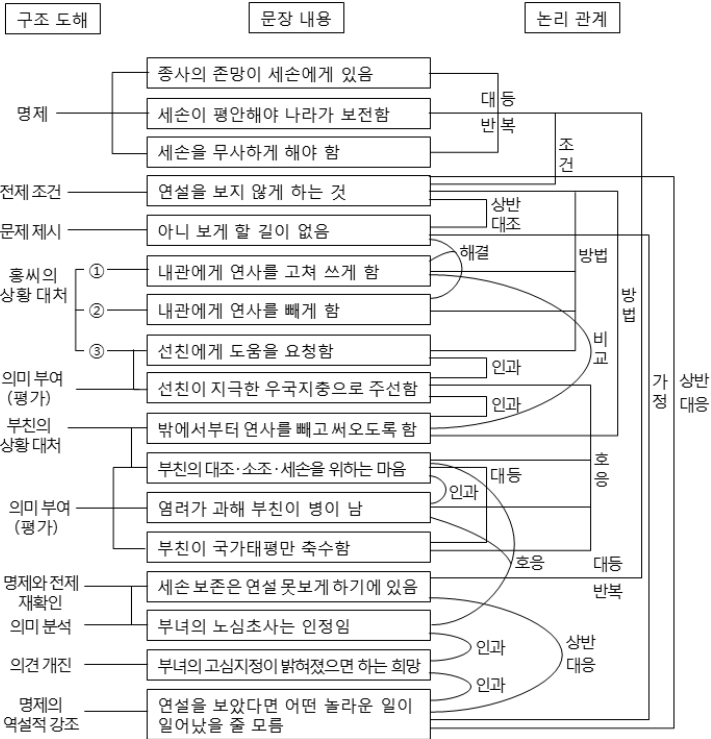
7) 김용숙, 『한중록 연구』, 한국연구원, 1983, 295쪽.

문장도 호소력을 지니고 있지만 논리구성적인 차원을 좀더 면밀히 들여다보아야만 설득 화법이 지닌 맥락이 드러날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나의 예문을 통해 분석하기로 한다.

세손(世孫) 현 몸의 종사존망(宗社存亡)이 이시니 평안호셔야 나라이 보전홀 거시니 세손을 무스케 홀 도리가 그 년설(筵說)을 아니 보시기의 이시니 그을 아니 보오시게 홀 길이 업셔 니관드려 일너 뵈오거든 그 년스(筵辭)은 곳쳐 뵈 보시게 호고 위급흔 썩면 니가 니관에게 친히 말호야 썩이게 호고 이 스연을 선친기 기별호야 아모조록 세손 평안홀 도리롤 호쇼셔 하니 선친 지극하신 우국지통(憂國之忠)으로 두루 주선호셔 그런 말은 밧그로셔 썩히고 뵈오게 하니 선친이 간험(艱險)흔 썩롤 당호오셔 더도(大朝)은 해도 갑스오려 쇼도(小朝)도 보호호랴 세손도 위호며 평안케 호랴 호오시니 틈는 듯흔 용녀(用慮)가 과하신 썩는 격기(激氣)가 성호오셔 관격증(關格症)이 미양 발호오시고 날을 보시면 하늘을 우리러 국가티평만 특슈호오시고 세손을 보전호야 종사를 닳게 홀 기틀이 그 년설 못보시게 호기의 이시니 우리 부녀의 초심(焦心)호던 일은 상니(常理) 인정이러니와 그 고심지성(苦心至誠)을 가질(可質) 신명(神明)홀디라 만일 세손 칭찬호오시든 상교(上敎)를 바로 뵈왔더면 세손기 놀나온 일이 어는 지경의 니르러실 줄 알니오<sup>8)</sup>

이 문단은 세손을 무사하게 보호해야 나라가 보전될 수 있다는, 하나의 지켜져야 할 가치를 위해 흥씨 자신과 그 아버지 흥봉한이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부단하게 노력했는지, 우국의 충성심을 갖고 어려운 일들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증명하고, 그러한 수행 노력을 인정 받고자 하는 소망을 피력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결국 설득시키고자 한다. 이 문단의 구조를 도식화하고 이를 가지고 설명하기로 하자.<sup>9)</sup>

8) 이병기·김동욱 교주, <한중록(閑中漫錄)>, 『한국고전문학대계』 14권, 민중서관, 1961, 220쪽.



〈도식 1〉

이 글은 맨 앞에 종사의 존망이 세손에게 달려 있으니 세손을 무사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 명제를 놓고 있다. 명제의 형식을 세 번이나 환언 반복함으로써 그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명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사도세자가] 연설을 보지 않게 하는 것이다.<sup>10)</sup> 그렇지만

9) 문장과 어절 내용들 상호간의 논리관계에 대해서는 결속성(coherence) 차원의 개념들을 우리글의 문법 환경에 맞게 보정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결속성에 대해서는 김태욱·이현호 역, 『담화 텍스트언어학 입문』, 양영각, 1991, 82~106쪽 참조.

10) 세손(나중에 정조대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조의 세손에 대한 칭찬이 나타나는 연설(筵說)을 우울증과 의대증에 빠져 정신질환을 보이고 있는 사도세자가 보아서는



그것을 못보게 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홍씨 자신의 지혜로운 방식이 세 가지로 제시된다. 하나는 전달된 연사를 내관으로 하여금 고쳐 쓰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관으로 하여금 보여줘서는 안되는 연사를 아예 빼게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좀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아버지인 홍봉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대처 방식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인다. 연사를 고쳐 쓰는 것은 고친 흔적이 남기 때문에 불완전한 방법이고, 연사를 아예 빼는 것은 흔적 없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다 안전하지만 그때마다 내관이 다시 써야 한다든가 하는 심한 번거로움이 동반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홍씨는 고위관직에 있는 자기 아버지 홍봉한에게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주길 바라기에 이른다. 궁중문서의 기록과 유통에 대해 잘 알 수 있으며, 그것의 조정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아는 위치에 있는 부친에게 일을 부탁하는 것이 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점진적인 발전의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상황대처 방식을 통해 홍씨는 자신의 상황대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상황판단과 상황대처의 적절함을 강조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의 간난과 고심의 정도를 독자로 하여금 느끼게 하려는 의도도 지니고 있다.<sup>11)</sup> ‘위급한 때’와 ‘내관에게 친히 말함’의 어사들은 그때의 촉박함을 드러내는 언술적 장치라고 생각된다.

홍씨가 선친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다음은 홍봉한의 행위와 그의 생각과 의도 등에 대한 홍씨의 서술로 이어진다. 홍씨가 곁에서 보고 느낀 바를 간접적으로 진술하는 형식인 것이다. 홍씨가 도움을 요청한 결과, 부친은 적극적으로 나서 일을 주선하게 되는데, 부친의 그런 반응에

---

곤란하다는 게 작자의 판단이다.

11) 그때의 노심초사와 고심지정이 뒤에서 표면에 언급됨으로써 서로 호응한다.

대해 ‘지극한 우국지충’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밖에서부터 아예 곤란한 연사를 빼고 써오도록 하는 것이 홍봉한의 상황대처 방식이다. 이는 바깥에서 전해져 온 연사를 내관들이 황급하게 고쳐 쓰고 빼는 난리법석을 벌이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어서 확실히 진전된 방식이다. 이는 홍씨의 부친 홍봉한이 국정에 참여하는 고위관직자이고 왕세자가 사위가 되는 부원군이라는 지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해 홍씨는 대조(영조)와 소조(사도세자)와 세손(정조)을 모두 위하는 부친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그렇게 어려운 일의 수행의 결과는 부친의 과도한 염려로 병이 났다는 것이다. 강연에서 영조와 정조 사이의 대화가 있을 때마다 매번 기록에 신경을 써야 하고 세자가 알아차리지 않을까 하는 일촉즉발의 위기감 속에서 그것이 누적되다보니 일종의 혈압과 호흡이 고르지 못한 병이 생겼다는 것이다. 병이 생겼음에도 부친이 국가의 태평만을 기원했다는 점을 홍씨는 높이 평가한다. 이는 앞서 말한 홍봉한의 ‘지극한 우국지충’이나 ‘대조·소조·세손 모두를 위하는 마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서로 호응한다. 이를 통해 홍씨가 자기 부친의 사심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지고지순한 충성심을 재삼재사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한 나라의 세자비와 부원군을 이토록 힘들게 하고 병까지 얻게 한 이 일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홍씨는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건 맨 앞에 제시된 명제와 전제를 다시 한 번 환기하면서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세손을 보전하여 종사를 잇는 것, 그것이야말로 절대명제요 당위명제인데, 그것은 오로지 사도세자가 세손과 관련된 연설을 못보게 하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부녀가 간난의 시절을 함께 보내면서 노심초사해온 것은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기본적인 정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불순한 시선들에 대한 겸양의

변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부녀의 고심지정이 널리 밝혀져 인정받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마지막으로 앞의 명제와 전제를 역설적 가정법으로 다시 한 번 묻는다. ‘만약 세손을 칭찬하는 상교를 사도세자가 보았다면 세손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줄 알겠는가?’ 이는 홍씨 부녀의 상황 대처 방식이 적절했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강렬한 효과를 내고 있다. 홍씨 부녀의 종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재삼 환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단은 인격에 의한 설득<sup>12)</sup> 화법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자기 자신을 어떠한 인품을 지닌 인물로 보이게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글에서 작자는 자기 자신의 사려깊고 지혜로운 상황 판단력과 상황 대처 능력을 드러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거기에다가 작자의 부친이 개입하여 충정어리고 열정적인 노력으로 난관을 타개해나가는 모습을 그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손이 처한 상황을 종사존망의 중차대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세손을 평안하게 하고자 노심초사하는 부녀를 부각시키면서 작자의 선친을 ‘지극하신 우국지충’으로, ‘국가태평만 축수’하는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작자가 자기 선친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선친이 처해 있는 정치적 고난과 그에 대한 세상의 평가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부녀가 치밀하게 판단하여 연설에서 세손을 칭찬하는 상교의 내용을 고치고 빼는 조치들은 그들이 지혜롭고 사려가 깊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시킨다. 이 글은 일종의 방어적 변론으로서 자기 부녀가 이만큼 세심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여 최선을 다해 행동했다는 것을 천명함으로써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설득하고자 한다.

12) 아리스토텔레스, 전영우 역,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 설득의 변론 기술』, 민지사, 2009, 169~170쪽.

한편 이 글은 인격에 의한 설득 화법과 더불어 정서적 호소에 의한 설득 화법도 구사하고 있다. 정서적 호소에 의한 설득은 청자에게 어떤 종류의 감정을 안겨주도록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화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글의 표면에 드러나는 것은 글의 마지막 문장 “일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을 줄 알리오”에서이지만, 글의 여러 문맥에서 감지되는 상황의 급박함과 부녀의 노심초사, 부친의 발병 등에 대한 언급들에서도 독자를 향한 정서적 호소의 면모를 볼 수 있다.

이 글의 작자가 지닌 특유의 객체높임 또는 상대높임의 겸양 화법은 설득력의 강화에 일조한다. 특히 존경의 선어말어미라고 할 수 있는 ‘오’<sup>13)</sup>와 ‘시’를 함께 붙여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효과를 극대화한다. 그것은 글을 읽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글 속의 상황에 빠져들게 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겸양 화법은 작자가 겸손하고 선한 인품의 소유자라는 인식을 유발시킴으로써 인간적 신뢰를 주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우리말의 경어법 체계가 지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는 상대방의 심리적 경계를 해체시키고 이해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배가시키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앞에서 따져본 바와 같이 명제를 제시하고 그 전제조건과 문제점을 말한 다음 인물들의 상황 대처 능력을 하나하나 진술하고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자신의 바람도 개진하는 등 논리력이 상당히 있는 글이다. 그러한 논리력은 연결어미를 일별해 보아도 알 수 있다. ‘~고’나 ‘~며’와 같은 부가적 연결어미의 쓰임새에 비해 ‘~니’나 ‘~면’이나 ‘~든’ 등과 같은 종속적 연결어미의 쓰임새가 월등 많이 나타난다.(5:20) 앞뒤의 연결을 종속적으로 함으로써 앞뒤의 인과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논리의 증대가 바로 설득력의 증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설득

13) ‘옴’도 마찬가지로 본다.

력이 인과관계와 같은 구절들 상호간의 문맥적 관계의 설정에서도 유발된다. 는 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설득력의 강화에 기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 <조씨삼대록>의 설득 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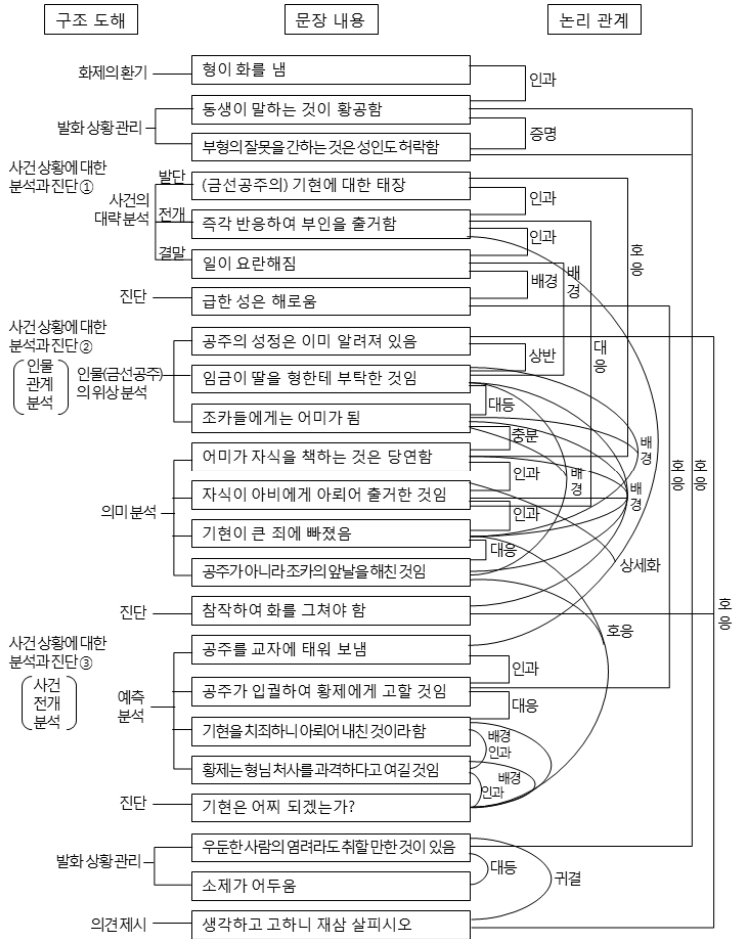
국문장편 가문소설들은 거개가 18세기에 창작되기 시작하여 19세기까지 이어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엄격한 창작시기를 문제삼는다면 많은 가문소설들이 <한중록>보다 앞선 시기에 출현했으며, 또 많은 가문소설들은 <한중록>보다 늦게 출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가문소설들에 대해 딱히 선명한 통시적 흐름을 가능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주제라든가 의식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하는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가문소설의 역사적 흐름을 확실하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화법에 대해서는 더욱이나 변별의 경계를 짓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편의상 가문소설과 <한중록>의 시기 판별을 잠시 보류하고 같은 평면에 놓고 분석에 임하기로 한다. 앞으로 연구가 진전되어 내용과 형식, 그리고 화법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흐름의 모습이 잡히게 된다면 당연히 시기별 성격에 따라 다시 분석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인물의 발화 중에서 설득 화법 부분에 대해서만 보는 것이므로 그것이 시대별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그래도 적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성이 경감될 여지는 있다고 본다. 사실 가문소설의 인물들 가운데 슬기롭고 덕망 있는 인물들의 차분하게 진행되는 설득력 있는 진술은 가문소설들간에 차이가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살펴본 <한중록>에서 작가 혜경궁 홍씨의 지혜롭고 사려깊은 발화 스타일과도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유심히 따져보면 둘 사이의 논리구조의 차이도 상당히 클 것으로 사료된다. <조씨삼대록>에서 하나의 사례를 취해 분석하기로 한다.

형장이 임의 노를 발호시미 쇼데 감히 말슴 내오미 황공호오나 부형지과(父兄之過)의 자데(子弟)의 권간(勸諫)은 성교(聖敎)의 허허신 배라 금일 기현의 슈장(受杖)호미 일장 가쇼지스(可笑之事)여늘 엇지 부인의 일을 즉 슈호여 출거의 맛츠며 질이(姪兒) 미세흔 즈식과 달나 스키(事機) 여츠 요란 호면 저의 형시 요란호오리니 범스(凡事)의 빠른 노와 급흔 성이 반드시 히로 오미 잇느니 저 공주의 성정은 임의 아른 지 오리고 성상이 왕희지호(王姬)를 슈샤 형장기 부탁호시니 질아 등의게는 명위(名位) 모지나 어미 되니 유죄무죄간 즈식은 죄척호른 인개유지(人皆有之)어늘 즈식된 재 부전(父前)의 살와 의모(義母)를 영출(令出)타 호면 기현이 불초대죄(不肖大罪)의 함낙호리니 츄는 공주를 히치 아나 질의 전정(前程)을 히호시미라 십분 참작호여 굿치쇼셔 이의 관비 하리를 명호여 시러가라 호신들 저 공주 어대로 향호리잇고 절노 입궐호여 황야(皇爺)기 고희진대 기현이 불공호여 치죄호미 아버를 도도와 내친다 호오리니 성상이 형장 쳐스를 아니 과격히 너기시며 기현이 무슴 사람이 되리잇가 우재천너(愚者千慮)의 필유일득(必有一得)이니 쇼데 비록 암열하나 김히 스량(思量)호여 고희옵느니 지삼 상찰호쇼셔<sup>14)</sup>

이 문단은 발화자의 형님 되는 사람(진왕)이 그의 아들인 기현이 자신의 부인이자 기현의 어머니인 금선공주에게 태형을 당하자 화가 나서 자신의 부인을 출거시켰으나 일이 커졌으므로 사리를 잘 살펴 화를 그쳐야 한다고 동생 되는 사람(초공)이 형님한테 간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설득의 대상은 발화자의 형장이고, 두 사람이 맞대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이 문단의 구조를 도식화한 다음 설명하기로 하자.

14) 김문희 역주, <조씨삼대록> 1, 권지삼 92~94쪽, 『이화한국문화연구총서』 11, 소명출판, 2010, 519~520쪽.



<도식 2>

이 글의 첫 부분은 발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화제를 환기하고 자신의 발화에 대해 상황관리를 하는 대목이다. 먼저 형이 화를 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나서 동생이 말하는 그 자체가 황공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윗사람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말을 하는 그 자체에 대한 검양의 표현이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윗사람의 행위에 대해 말할 때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다. 그리고 ‘부형의 잘못을 그 자제가 간하는 것은 성인도 허락한 바라고 하면서 일반화를 통한 간언의 정당성 내지는 당위성을 증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글의 성격은 남을 설득하기 위해 사건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는 이 글의 핵심 부분이다. 이 부분은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 첫 단계는 사건의 대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사건의 개략을 발단, 전개, 결과로 간단하게 추리면서 문제가 발생된 배경을 짚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금선공주가 기현에게 태장을 가한 것이고<sup>15)</sup> 사건의 전개는 진왕이 즉각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부인을 출거해버린 일이다. 그리고 사건의 결과는 그것으로 인해 일이 요란하게 되고 커진 것이다. 일이 이렇게 커진 것은 가문 내에서 조용히 해결해야 할 일을 부인이 밖으로 나감으로써 비롯되었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여기 깔려 있다. 이와 같이 사건을 개략적으로 분석하면서 내린 진단은 급하게 화를 내어 일을 그렇게 과격하게 처리한 것이 해롭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인물들간의 관계와 성격에 대한 분석이다. 여기에서 처음은 금선공주라는 인물의 위상을 분석한다. 지금 문제의 초점이 된 인물이 바로 금선공주이기 때문에 금선공주에 대한 위치를 다시금 조명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가문 내에서 금선공주의 성정은 이미 알려져 있다는 점을 먼저 얘기한다. 그것은 두 가지 함의를 내포한다고 본다. 하나는 성정이 나쁜 것을 알면서 격하게 반응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후회의 감정 토로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의 일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산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예상은 뒷 문단에서 하나하나

15) 기현이 태장을 받은 것을 남들의 웃음을 살 일이라고 보고 있어 태장의 잘못됨에 대한 지적을 덧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태장을 가한 금선공주를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적된다. 금선공주의 성정은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제시되는 것이 왕이 형님한테 그 딸을 부탁한 것이라는 점이다. 왕이 자기 딸을 하가하는 것은 명예도 명예려니와 공손히 잘 모시라는 명령을 한 셈인데 그렇게 함부로 쫓아냈다는 자책이 여기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왕의 입장과 형님의 입장을 두루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금선공주의 위상 분석에서 이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나서 금선공주가 조카들에게는 그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을 던져서 강조한다. 말할 필요조차 없는 뻔한 사실이지만 이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이다. 형님조차 이 당연한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들어 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의미분석에 이 사실은 그 바탕이 되어준다.

다음은 금선공주의 위상 분석을 토대로 하여 거기에 대한 의미분석이 가해지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사건에 대한 발화자의 평가와 해석이 들어가게 된다. 앞에서 금선공주가 조카들에게는 그 어머니가 된다고 한 것을 바로 이어 받아서 어머니기 때문에 그녀가 자식을 책해도 당연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어머니로서 자기 자식을 책한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쫓아내는 해괴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진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밖에서 그 일을 볼 때에는 태장을 당한 자식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여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머니에게 벌을 받는 것을 자식이 부끄럽게 생각하여 자중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쳐 어머니를 쫓아내게 한 것이라는 진단이다. 기현이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지 않는지만 외부의 시선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현이 큰 죄에 빠졌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기현의 이 큰 죄는 모자간 관계에서 볼 때 윤리적으로 용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립된다. 기현이 금선공주가 직접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가족 구성 관습

에 비추어볼 때 한 어머니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부모와 자식간의 윤리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기현이 앞으로 달게 되는 인식표는 기현에게 도움은커녕 해롭기만 하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기현이 거대 족벌 가문의 적장자로서 대 사회적 관계를 갖는 데에 대한 커다란 우려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선공주가 조카들의 어머니가 된다는 평범한 인식을 토대로 금선공주를 쫓아낸 사건이 조카에게는 가족윤리적으로 죄가 되고 사회적 처신으로는 아주 큰 장애물이 된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미분석은 자연스럽게 이런 모든 점들을 참작하여 화를 그쳐야 한다는 진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형님의 화에 대한 이 진단은 이 글의 첫머리에 제시된 화제이기도 했는데 이것이 점점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형님이 화를 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지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사건 상황에 대한 개략적 분석을 통해 급하게 화를 낸 것이 해롭다는 진단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화를 그쳐야 한다는 권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관적인 의견을 담아 권유를 하기에 이른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물의 위상과 관계를 토대로 관련 인물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사건에 대한 분석은 계속된다. 이번에는 장래의 사건 추이를 분석하는데,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예측을 동반하면서 이루어진다. 앞에서 금선공주를 쫓아낸 일만을 언급했지만 여기에서 처음으로 교자에 태워 보냈다는 사건의 명세화 내지는 형상화가 제시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출거의 모습을 그린 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들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이다. 다음 일들은 시공간 이동에 따라 연쇄되면서 일어난다. 공주가 교자를 타고 가는 곳은 황제가 있는 대궐일 것이고, 황제에게 온 이유를 고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실행 가능성이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개연성이 높은 일일 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공주가 하는 신고의 내용인데, 그것은 앞선 분석에서 이미 밝혀진대로이다. 기현이 불공하여 공주가 치죄 했더니 그 아비에게 일러 바쳐 자기를 내쫓았다고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황제의 반응은 형님의 처사를 과격하고 잘못된 것으로 여길 것이라는 점이다. 황제의 이러한 반응은 앞에서 황제가 자기 딸을 형님한테 부탁한 것이라는 위상 점점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인물들의 대답과 반응은 실행 가능성이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개연성이 높은 일들로 꾸러지고 있어 논리적 정합성을 강화해준다. 앞으로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내리는 진단이자 의미부여는 ‘그렇다면 과연 기현은 어찌 되겠는가?’이다. 이는 앞에서 이미 기현은 윤리적으로 큰 죄에 빠졌고, 사회적으로 큰 위험에 빠졌다고 한 분석과 서로 호응한다. 기현의 어려움을 역으로 물음으로써 더욱 강조되는 효과가 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앞의 진단에서는 계속해서 형님이 화를 낸 것이 잘못이고 화를 그쳐야 한다는 간언으로 나타났지만 여기에서는 기현이 처한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은 형님이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장남이기 때문에 형님을 향한 간언으로서 화를 그쳐야 한다는 말보다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낸다고 생각된다.

이 글의 마지막 단계는 첫 단계와 마찬가지로 발화자의 발화 상황 관리가 나타나는 것과 함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호소로 마무리되고 있다. 발화 상황 관리의 여기에서도 자신을 낮추는 겸양을 담아 자신의 발화의 정당성을 일반화를 통해 개선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즉, ‘우둔한 사람의 천 가지 염려도 반드시 하나는 취할만하다’는 일반화를 통한 증명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두운 사람이라고 겸사하면서 자신의 많은 말 중에 취할만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충분히 고심하여 고탄니 재삼 살필 것을 호소한다. 발화자가 깊이 생

각한 것은 앞의 사건과 인물 분석, 의미 분석과 진단에서 이미 드러났으므로 의견을 제시하는 이 호소는 그만큼 힘을 지닐 것으로 사료된다.

이 글은 전체적으로 사건의 분해 분석과 평가 진단에 이르기까지 논리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 사건 상황과 인물 관계, 그리고 사건의 미래적 추이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조명하고 그에 비추어 진단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설득이 자체의 논리 구조에서 이루어지게끔 하고 있다. 앞에서 <한중록>이 자신의 인격에 기대어 간접적으로 설득했던 방식과는 다르다고 생각된다. 자체의 논리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구조적 논리가 증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서적으로 호소하는 방식은 여기에서도 쓰이고 있지만 한층 약화된 모습이다. 사건을 분석하면서 “기현이 무슨 사람이 되리이까?” 하는 물음은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라기보다는 곤란한 지경에 빠진 인물을 강조하기 위한 논리적인 방편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다만 자신을 낮추는 화법이 정서적인 호소를 다소 유발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체로 객관적인 상황 판단에 의한 이성적인 호소가 주조가 되고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 겸양 화법은 자기 낮춤의 화술이 강화되어 있음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동생으로서 형님이 이미 한 일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것이 황공하다는 진술이며, 자신을 우둔한 사람이라거나 어둡다고 하는 진술들에서 그런 걸 느낄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한중록>에서는 우리말의 경어법 체계에서 겸양 화법이 잘 드러나고 있음에 비해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보잘 것 없는 존재로 표현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sup>16)</sup>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 높임의 경어를 사용하

16) 대화 또는 의사소통에는 공손성의 원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겸양의 격률이 들어 있다. 겸양의 격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는 대신 비방은 극대화하는 것이다. Geoffrey Leech, *Principles of pragmatics*, Longman, 1983, pp.35~38.

여 상대방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주체 낮춤의 공식적인 표현구들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조씨삼대록>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통해 겸양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 글에서 연결어미의 성격을 보면 여기에서도 종속적인 연결어미의 사용이 증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가적인 연결어미보다는 종속적인 연결어미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4:18) 종속적인 연결어미의 사용이 많다는 것이 곧바로 논리의 증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앞뒤 구절들간의 인과관계적 설정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의 역할은 충분히 한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록>에서는 방어적으로 변론하는 데 치중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조씨삼대록>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논변하고 있다. 사물의 이치에 대해 옳고 비름을 밝히는 논변에 좀더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치밀한 논구와 미시적인 분석을 통한 설득이 수행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위에서 말한대로 논리 구조의 강화에 의한 설득이라는 점과 상통한다.

#### 4. 설득 화법의 위상과 의의

앞 장에서 <한중록>과 <조씨삼대록>의 설득 화법을 각각 살펴보았다.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하는 어법으로 구성된 글에서 우리는 <한중록>이 경어체를 사용하면서 인격에 의한 설득 방법을 구사한다면, <조씨삼대록>의 말은 자신을 낮추는 겸양 어법을 쓰면서 설득적인 논리 구조를 강화하는 방법을 구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설득 화법이 지니는 시대적인 의의라든지 그것이 차지하는 사회적 위상 같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설득 화법은 말하는 호흡이 상당히 길어졌다고 할 수 있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하게 서서히 진술한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바로 직격하는 짧은 화법이 아니다. 우리는 <한중록>과 가문소설 당시의 다른 고소설들, 더 나아가 그 이전 시대의 고소설들에서는 남을 설득하는 화자의 진술이 그다지 많지 않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길지 않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거기에서는 조밀조밀하고 차분하고 논리정연하게 긴 호흡으로 남을 설득하는 진술이 부재했다고 할 수 있다. <한중록>과 <조씨삼대록>이 장편이기 때문에 인물의 긴 호흡의 진술이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관점은 너무 단면적이다. 조선시대의 고소설들에서 서술자의 진술 대목에서는 긴 호흡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있고, 인물의 정서를 담은 내면 독백이라든가 편지글이나 삽입시가 같은 곳에서도 긴 호흡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인물 발화의 경우 논리정연한 설득 화법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정서를 가득 실은 화법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한중록>과 <조씨삼대록>에 보이는 긴 호흡의 설득 화법은 인물의 발화 방식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지 않나 판단된다. 조선시대 고소설에서의 인물들은 대개 주동적 행위에 의한 사건의 선조적 전개에 역할이라든지 주정적인 감정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생각된다. 사건이나 인물들에 대한 분해와 분석, 세부적인 진단과 평가 종합 등의 논리적 화술의 역할에 있어서는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대체로 서술자에게 맡겨진 임무처럼 생각돼왔던 것이다. 고소설들에서의 인물들이 평면적 인물로 평가된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한중록>과 <조씨삼대록>에서의 주요 인물들은 화술에 있어서 서술자의 다변성만큼의 달변을 보여준다. 물론 그 달변이 논리가

부재한 중구난방식의 요설이 아니라 논리정연한 화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긴 호흡의 인물 발화가 서사 내용 전달의 본격적이고 훌륭한 매개체가 된다는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간 고소설은 대체로 인물을 플롯을 움직이게 하는 지점들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물들의 말이 사건의 전개뿐만 아니라 서사적 내용과 의미, 인물의 성격 등 서사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수행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긴 호흡의 인물 발화는 서사공간을 창출하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건의 시간적인 운동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인물들이 일단은 말을 많이 함으로써 서술의 공간까지 확장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다시 말해 서사 전달만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진술의 풍요로움도 목적이 된 것이고, 독자들이 그러한 측면에 흥미를 느끼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서술의 층들 사이의 공간에 달변의 화술이 풍부하고 밀도 있게 탑재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말이 많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말 저말 횡설수설하면서 길게 늘어놓는 건 설득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그렇다고 정감을 듬뿍 담아 주관적인 서정을 길게 가져가도 설득에 도움이 안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중록>과 <조씨삼대록>의 대목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올바른 행동을 알아달라고 사건들과 행위들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배열하거나, 상대방의 행동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진단을 제출해야만 한다. 서술 대상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해, 분석, 종합, 진단, 평가, 주장 등이 구조적으로 잘 짜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의 구조적인 짜임새가 논리력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인물들이 긴 호흡으로 말하는 방식이 등장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독자들이 긴 호흡의 밀도 있는 독서를 선호했다는 사실의 반영이기도 하다. 인물들이 지식을 전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

거나 주관적인 정서를 토로하면서 할 말만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주시하면서 상황에 대해 다각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논리적인 다면의 발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등장한 것은 독자의 요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독자들이 그 발화 방식에 자신들도 설득되는지를 눈여겨본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제 소설 작가나 독자 모두 다 인물의 긴 호흡의 논리적인 발화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보인다.

둘째, 설득 화법은 겸양적 어법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겸양적 어법은 자기를 낮추는 겸양어를 쓰거나 겸사의 말을 곁들이는 어법으로서 자신을 낮추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중록>에서는 어휘나 어미 차원의 경어체를 사용함으로써 겸양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조씨삼대록>에서는 문장 구조 차원에서 겸사의 어절을 사용하고 있었다. 대화의 원리에는 공손성의 원리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보이려면 최대한 자신을 낮추거나 자신을 비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너무 낮추게 되면 때로는 상대에게 비굴하게 비취지고 말하는 자신 또한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상대를 칭찬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것이 겸양의 원칙이다. 설득 화법에 겸양적 어법이 동반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어법이 설득력에 효과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중록>에서는 미약하게 나타나지만 <조씨삼대록>에서는 어법적인 겸손함이 진하게 배어 나온다. 가문소설은 전반적으로 모든 인물들의 발화에 이러한 어법적인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는 듯하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손윗 어른에 대한 발화에서는 겸양적 어법이 어느 정도 이상의 함량씩은 함유되어 있다. 그 정도가 설득 화법에서는 좀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겸손하게 말해야 설득력이나 호소력이 생긴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겸손한 어법은 듣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무화시키고 무장해제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말하는 화제에 대해 동참하게끔 하고,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그것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심리적 원근 거리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어법 하에서는 남을 감화시키거나 설득하는 능력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겸손한 어법은 유교식 교양 교육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조 초기부터 유교적 교양이 선비들의 수양 덕목으로 강조되다가 점차 민간에게도 요구되는 흐름이 이어졌다. 조선조 중기에는 서원과 향교에서의 교육에서도 예의범절이 중시되고 이는 거가(居家) 자녀 교육, 동몽(童蒙) 교육으로 확산되었다. 예의범절의 교양 교육은 유가의 예(禮)와 경(敬), 신(愼)에 대한 사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들 사상은 선비의 고상한 인격 수양 차원에서 비롯되었으나 후대로 갈수록 백성 모두의 기본적인 행위 기준으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경(敬) 사상이 원래 초월적 존재에 대한 외경에서 출발했으나 나중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실천개념인 윗사람에 대한 공경까지 아우르게 되었다.<sup>17)</sup> 다시 말해 사회적 미풍양속을 형성하는 가치 원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조선조 중기 이후 가례(家禮)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도 윗사람을 받드는 공경한 자세에 영향을 끼친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이 어법에 실현되는 양상을 우리는 공손어법에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교양 화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대되었다고 생각된다. 사람들의 생각들이 보다 복잡다단해진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기술이 개발될 필요가 있는데, 교양 화술의 구사도 그 일환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교양적 화술은 거가 자녀 교육에서도 관심

17) 이학당, 「이덕무의 유가 동몽교육(童蒙教育) 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실학연구』 29, 2015, 279~313쪽.

을 받지 않았을까 판단된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한중록>의 작자 혜경궁 홍씨도 세자빈이 되기 이전에 그러한 교양 교육의 수혜자로 생각되며, 가문소설의 작자들도 그러했으리라고 본다. 가문 구성원들이 제대로 교양 교육을 받아야 대인 관계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사회의 공적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도 유리하다고 당시의 가문들은 보았을 것이다. 가문 구성원들끼리도윗사람에 대한 공경한 어법은 철저하게 지켜져야만 하는 불문율이었던 것이다. <조씨삼대록>에서 볼 수 있듯이 쌍둥이 동생 초공이 형인 진왕에게 최대한의 공손한 어법으로 발화하고 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관계임에도 매우 어렵고 정중하게 성의를 다해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겸양 어법으로 형을 대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힘은 훨씬 증강되고 있다.

셋째, 설득 화법이 생활에 보다 밀착된 화법이라는 점이다. 위에 인용된 글을 보면 생활 정서가 비교적 생생하게 담겨 있다. 그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말하기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말하기에 더 가깝다고 생각된다. 공식 업무 공간이 아닌 사적인 공간에서의 말하기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말하기이다. 그래서 격식적이라기보다는 비격식적이다. 생활 정서가 생략되거나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재현되고 있으며, 정서들이 아기자기하게 짜여진 느낌도 든다. <한중록>에서 세손을 무사하게 보전해야 한다는 형식의 발언이 여러 차례 환언 반복되고 있는 현상은 자기 자식을 보호해야 한다는 어머니로서의 애타는 마음이 이 글 전체에 걸쳐 지배적인 정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처음 제시된 명제에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변주되고 중간에도 세손을 위하는 마음이 언뜻언뜻 비치며 뒤에서는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있고 마지막에서는 가정법에 의한 강렬한 효과를 노리며 다시 한 번 변주되고 있다.<sup>18)</sup> 사태를 평가하는 작

18) 여기에는 작가의 흥분되고 격앙된 어조가 약간 깃들여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가의 감정이 탑재된 어사나 투어들도 빈번하게 동원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sup>19)</sup> 작가가 부친에게 하는 말을 직접 인용하기도 하고,<sup>20)</sup> ‘~하랴, ~하랴, ~하랴’ 식의 일상어투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점들은 모두 이 글에서 작가가 평소 생각하고 생활하던 정서와 감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조씨삼대록>에서도 약간은 다르지만 정서들의 짜임새가 층차 있게 드러난다. 위 인용문에서는 정서적 방향성을 지닌 부사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sup>21)</sup> 사태를 평가하는, 그럼으로써 감정이 탑재된 어사나 투어도 여럿 보인다.<sup>22)</sup> 그리고 서술 대상과의 거리를 멀리 했다 가깝게 당겼다 하는 거리조정을 통해 정서의 움직임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sup>23)</sup>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겸양의 화법도 하나의 정서적 층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중록>과 <조씨삼대록>은 모두 일상적이고 생활적인 감정과 정서를 담고 있는 화법을 구사한다.

<한중록>과 <조씨삼대록>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설득 화법은 생활인이 일상에서 구사하는 화법이다. 거기에 발화자의 일상적인 생활정서가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지만 말의 흐름이 유려하고 유창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유창한 화술이 각종 험란한 관용어구나 수식어구, 그리고 고사인물적 한문어구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연결

19) 예컨대 ‘위급한 때’, ‘친히 말하여’, ‘아무쪼록’, ‘지극하신 우국지충’, ‘간험한 때를 당하여’, ‘타는 듯한 용려’, ‘격기가 성하오셔’, ‘관격증이 매양 발하오시고’, ‘하늘을 우러러’, ‘고심지성을 가질 신명할지라’, ‘놀라운 일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을 줄 알리오’ 등등.

20) “아무쪼록 세손 평안할 도리를 하소서”

21) 예컨대 ‘이미’, ‘감히’, ‘일장’, ‘십분’, ‘절로’, ‘무삼’, ‘비록’, ‘깊이’, ‘재삼’ 등.

22) ‘가소지사’, ‘빠른 노’, ‘급한 성’, ‘불초대죄’ 등

23) 금선공주를 가리키는 화자 초공의 지칭어를 보면 정서적 거리의 원근이 느껴진다. ‘부인’이나 ‘의모’, 또는 그냥 ‘공주’라고 했을 때는 감정을 제거한 채 객관적인 거리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저의 행세’ ‘저 공주’라고 했을 때는 정서적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어미들과 논리의 길을 따라 진술들이 물 흐르듯 흐른다. 약간의 한자어가 사용되고 약간의 금언들이 인용되고 있긴 하지만 거의 우리말로 된 구어체 화법인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구사하는 말을 꾸밈없이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구어체 화법이다. 물론 그것이 상당히 정중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면 구어체 중 일부분의 구어체 화법일 것이다. 우리는 비속한 말투의 또 다른 구어체 화법을 판소리 소설 등에서 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한중록>과 <조씨삼대록>에서 사용되는 인물의 설득 화법이 언문일치의 한 현상이라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양반 사대부 집안의 일상생활에서 쓰이던 구어체 화술을 그대로 글로 옮겨 적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설득 화법에 일상적 생활정서에 밀착된 구어체 화법이 사용되는 현상은 이런 구어체 화법이 설득력을 높인다고 생각한 당대인들의 인식을 말해준다. 고소설 전반에서 인물들의 발화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하기를 지향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니면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명령이거나 감탄 같은 말하기가 많았다. 그런데 그러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하기는 상당히 자족적이어서 상호간의 소통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내면 독백과 같은 형식의 발화가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일상적 생활정서에 밀착된 구어체 화법은 대화를 지향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상호간의 소통에 열려 있다. 구어체가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말건넬의 자질은 상대방과의 소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 5. 맺음말

이 글은 <한중록>과 <조씨삼대록>에서 볼 수 있는, 일인칭 진술이 논리적으로 펼쳐지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화법의 구조를 분석하

고, 그러한 설득 화법이 어떤 시대적 위상과 의의를 지니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한글 창제 이후 지식 및 정보 전달 위주의 한글 문헌들이 주를 이루다가 조선 후기 <한중록>과 국문장편 가문소설과 같은 문학적 서사체들에 와서 설득 논리가 한층 강화된 글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들을 주목하고 그 구조와 배경을 살펴보고자 했다. <한중록>은 논리적이지만 방어적인 변론을 위주로 하여 작자 자신과 작자 부친의 인격에 의한 설득을 주된 화법 방식으로 삼고 있음에 비해, <조씨삼대록>은 사물의 이치를 객관적으로 논구하고 상황에 대한 다각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을 통해 논리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상대방을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한중록>과 <조씨삼대록>에 나타나는 설득 화법은 발화 인물이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서술 대상을 요모조모 따지는 진술 방식을 선호하는 시대적 관점을 반영한다. 그러한 진술에는 서술 대상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해, 분석, 종합, 진단, 평가, 주장 등이 구조적으로 잘 짜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고소설의 독자들이 각 인물들의 말이 논리의 체계적이고 정연한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플롯의 시간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진술을 통한 서술 공간이 얼마나 풍부하게 창출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두 작품에 나타나는 설득 화법은 겸양의 어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특징도 있다. <한중록>에서는 어휘나 어미 차원의 경어체를 사용함으로써 겸양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조씨삼대록>에서는 문장 구조 차원에서 고사성어적 겸사의 구절을 사용하는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겸손한 어법이 남을 감화시키거나 설득시키는 능력이 증대된다는 당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유교식 교양 교육이 선비의 수양 덕목으로부터 벗어나 일반 백성의 행위 기준으로 확대된 당시의 교양 교육의 실상을 반영한다. 두 작품에 나타나는 설득 화법은 일상적인 생활 정서를 그대로 담은 구어체 화술을 구사하

고 있어 당대의 언문일치 현상을 잘 보여준다. 이는 판소리 소설이 보여주는 비속한 말투의 구어체 화법이 아닌, 또 하나의 다른 층위의 구어체 화법, 즉 양반 사대부 가문에서 행해지는 일상적 어문생활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조선 후기 서사체에 나타나는 화법의 성격을 탐색하고 범주화하는 시학적 접근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요청되는 과제라고 본다. 설득 화법을 비롯한 여러 다양한 성격의 화법 구조가 탐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 서사체에 나타나는 설득 화법 중에서 상당히 유형화되어 반복되는, 그래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두 가지 양상을 주목했으나, 당시 설득 화법의 방식이 이 두 가지 형태만이 아니란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각각의 하위 유형을 설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 앞으로 여러 가지 화법에 대한 접근이 수행 축적된다면 당시의 화술적 맥락들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구축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어문생활 또는 국어생활의 단면이 재구성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문희 역주, <조씨삼대록> 1, 권지삼 92~94쪽, 『이화한국문화연구총서』 11, 소명출판, 2010, 1~662쪽.
- 이병기·김동욱 교주, <한중록(閑中漫錄)>, 『한국고전문학대계』 14권, 민중서관, 1961, 1~790쪽.
- 정규복·박재연 공편, 『제일기언』, 국학자료원, 2001, 1~714쪽.
- 김용숙, 『한중록 연구』, 한국연구원, 1983, 1~390쪽.
- 김태옥·이현호 역, 『담화 텍스트언어학 입문』, 양영각, 1991, 1~271쪽.
- 민현식, 「갑자 상소문의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연구」, 『어문연구』 39, 2011, 7~42쪽.
-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1~256쪽.
- 백두현, 「어문생활사로 본 인간과 한글고문서의 연구 방법」, 『국어사연구』 10, 2010, 41~72쪽.
- 염은열, 「상소문의 글쓰기 전략 연구」, 『국어교육연구』 3, 1996, 77~98쪽.
- 오인환·이규완, 「상소의 설득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7, 2003, 5~37쪽.
- 이학당, 「이덕무의 유가 동몽교육(童蒙教育) 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실학연구』 29, 2015, 279~313쪽.
- 정영호, 「<경화연>과 한글역본 <제일기언>의 비교 연구」, 『중국소설논총』 26, 2007, 271~294쪽.
- 조동일, 「어문생활사로 나아가는 열린 시야」, 『관악어문연구』 28, 2003, 69~90쪽.
- 아리스토텔레스, 전영우 역,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 설득의 변론 기술』, 민지사, 2009, 1~473쪽.
- Geoffrey Leech, *Principles of pragmatics*, Longman, 1983, pp.1~250.

ABSTRACT
----------

Persuasive speech in <Hanjungrok(閑中錄)> and the long family novel in Korean language(<Chossisamdaerok(曹氏三代錄)>)

Kim, Hyun-joo

The first person speech narrated by logical thought in <Hanjungrok(閑中錄)> and the long family novel in Korean language in the late Choson dynasty tends to understand and persuade counterpart (including reader) reasonably.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persuasive speech structure and investigate current significance of that speech. <Hanjungrok(閑中錄)> persuade counterpart by insisting the personal transcendent greatness of writer herself and her father high official handling works skillfully. It is persuasive speech of the indirect and defensive debate. <Chossisamdaerok(曹氏三代錄)> persuade counterpart reasonably by strengthening the internal logic through objective identification about the reason things out and diversified and detailed analysis about the situation. The persuasive speech of two texts has feature which are lengthening breathing of speaking character. It shows cautious breakdown, analysis, generalization, diagnosis, evaluation, statement about the narrative object. It is a reflection of desire of readers at that time which want a creation of narrative space as well as movement of plotting through the voice of characters. The persuasive speech of two texts has feature utilizing the politeness speech style. <Hanjungrok(閑中錄)> use honorific vocabulary, but <Chossisamdaerok(曹氏三代錄)> use historical idiomatic phrase for politeness speech. It shows the recognition of those days which politeness speech style enlarge the power of the persuasion. It reflects reality of liberal education expanded to all the people from the education of Confucian scholar. The persuasive speech of two texts has feature which use colloquial style undertaking daily livelihood. It shows the unification of the written and spoken styles of a language which undertake daily livelihood in family of nobility and



dignitary.

**Key Words** <Hanjungrok(閑中錄)>, long family novel in Korean language, <Chossisam-daerok(曹氏三代錄)>, persuasive speech, politeness speech, colloquial style, daily livelihood style.

논문투고일 : 2015. 10. 28

심사완료일 : 2015. 12. 5

게재확정일 : 2015. 12. 8